



신곡 '오월애' 발표
 새 도약 꿈꾸는

빅톤

"긴 터널"을 지난 빅톤은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올해 데뷔 3년차가 된 빅톤은 "음악프로그램 1위보다는 음원차트 진입이 먼저"라는 소박한 꿈을 안고 출발한다.

사진제공 | 플랜에이엔터테인먼트

“우리 색깔에 꼭맞는 노래는 처음... 1위 하는 상상 몰래했죠”

꿈은 크게 가지라고 했었는데, 7인조 아이돌 그룹 빅톤(한승우·강승식·허찬·임세준·도한세·최병찬·정수빈)에게 현재 가장 큰 꿈은 '1위'가 아니다. 그저 '차트 인'이다. 소박해도 너무 소박한 꿈이다. 이들은 "신곡이 음원 차트에 진입만 해도 좋겠다"고 했다. 멤버들 얼굴과 말속에 뭔가 풀지 못한 아쉬움의 같증이 느껴졌다.

빅톤은 에이핑크, 허각 등이 소속된 플랜에이엔터테인먼트에서 2016년 11월 탄생한 보이 그룹이다. 올해 3년차를 맞은 이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이들의 최고 성적은 직전 앨범 '나를 기억해'로 기록한 댄스차트 81위다. 장르를 망라한 실시간 종합차트에는 진입하지 못했다. 그러나 "차트 인은 그게 처음"이었다.

데뷔 동기인 펜타곤이 '차트 인'뿐만 아니라 여주행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한 적도 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불안했던 것도 사실이

다. 더 많은 무대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기도 하고, 좋지 않은 쪽으로만 생각하면 슬펐다. 그럴수록 멤버들끼리 '영차영차'하면서 다독이며 단단해지자고 마음먹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인이 나오는, 이름과 노래를 알리기 위한 '무한 경쟁시대'에서 이들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도 크게 조바심 내지 않고 한 단계씩 밟아나가는 것도 이들의만의 성과다.

"눈에 띄는 성적이나 결과물이 없어도 1%씩만 성장해 언젠가 그 이상을 얻지 않을까 한다. 처음부터 잘되는 그룹이 어디 있겠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가면 분명 그 길 끝에 뭔가 보일 것 같다."

이들의 고민의 흔적은 6개월이라는 공백이 말해준다. 그동안 3개월 주기로 신곡을 발표하며 활동해왔던 이들이기에 6개월의 공백은 '긴 터널'과도 같았다.

하지만 빅톤은 공백기 동안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없다고 자리에 주저앉지 않

에이핑크와 한 소속사에서 3년차 무대 없었던 강남·신촌 버스킹 신곡 '오월애' 받자마자 "이거다" BTS 아이니드유 안무가 총연출 차트인 목표...너무 소박했나요?



었다. 올해 초 서울 강남, 신촌, 동대문, 경기 일산 등지에서 버스킹을 하며 팬들과 만났다. 데뷔 3년차로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이들이 말 그대로 맨바닥에 서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재충전의 시간이라고 해도 마냥 쉬 수는 없었다. 무대에 설 수 없다는 게 가장 힘들어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우리의 에너지를 내뿜고 싶었다. 버스킹을 하지는 멤버들의 의견이 나왔며, 전원 동의했다. 저희를 보러 온 팬들이 많아 용기가 더 생기더라. 일반 시민들도

많이 응원해주셔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

빅톤은 동시에 자신들의 색깔에 맞는 곡을 찾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처음 작업해 보는 작곡팀 '히든사운드'로부터 곡을 받고 "이거다!"고 느꼈다. 이들의 신곡은 '오월애' (舊月哀). '슬픔의 시간을 마주하다'라는 뜻을 담았다. 그동안 빅톤이 유지해왔던 '청량감'을 벗고 처연함을 담았다. 빅톤의 감미로운 보컬도 인상적이다.

"청춘들의 사랑과 이별을 노래하고 싶었는데 잘 맞아 떨어졌다. 저희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곡들과 다른 분위기다. 서정적인 분위기로 준비했다. 전 앨범에서는 가리시마가 돋보였다. 이번엔 슬프고 애잔함이 잘 표현됐다."

춤에서도 이런 장점을 그대로 살렸다. 너무 슬프지 않은 그리움을 담기 위해 멤버들의 춤 동작 하나하나에 현대무용을 가미했다. 방탄소년단 히트곡 '아이 니드 유'의 안무를 맡았던 허란경이 총연출을 맡았다.

"막내까지 올해 스무 살이 되면서 멤버 모

두 성년이 됐다. 소년의 청량감보다는 남자의 성숙함을 잘 표현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일명 '꽃 따는 춤'이라고, 우리만의 시그니처 춤이 되리라 믿는다. 노래와 춤, 모두 만족도가 100%다. 결과를 보고 더 올라갈 목표가 생길 것 같다."

이들은 "탈출구를 벗어"나 다시 출발선에 섰다.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비록 현재 꿈은 작고 소박해도 "새로운 세상을 향하는 목소리"라는 뜻을 가진 그룹 이름처럼 되고 싶어 했다.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은 다르다. 솔직히 지난 앨범까지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이번엔 우리가 하고 싶은 음악을 선보이게 됐으니 자신 있다. 시작이 좋으니 결과가 좋을 것 같다. 음악프로그램에서 1위하는 모습을 몰래 상상하지만, 현실로 이루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나. 모두 우느라 수상소감을 제대로 말 못할 것 같지만, 그 상상만으로도 우리를 다시 움직이게 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5

허준호 재혼 사실 뒤늦게 알려져

배우 허준호(54)가 재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소속사 제이스타즈엔터테인먼트는 "허준호가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때에 곁에 다가가 준 따뜻한 사랑과 어렵게 인연을 맺고 서로를 향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준호는 1997년 배우 이하얀과 결혼했지만 2003년 이혼했으며, 2010년 개봉 영화 '이끼'를 마지막으로 9년여 공백을 가졌다. 허준호는 공백기 동안 미국 LA에 거주했지만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때 젊은 시절 좋은 감정을 가졌던 여성을 만났다. 1986년 영화 '청 블루 스키키'로 데뷔한 허준호는 현재 MBC 수목드라마 '이리와 안아줘'에 출연 중이다.

합합스타 켄드릭 라마 7월 내한공연

미국 최고권위의 언론·문화계상인 풀리처상 음악부문 수상자인 합합스타 켄드릭 라마(31)가 첫 내한공연을 한다. 그는 7월 30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24 켄드릭 라마'를 통해 한국 팬들을 처음 만난다. '21세기 클래식' 또는 '21세기 시인'으로 불리는 라마는 청중을 압도하는 퍼포먼스와 시대를 통찰하는 가사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한 4장의 정규앨범으로 그래미상을 12차례 거머쥐었다. 4월 풀리처상을 받았다. 클래식과 재즈의 음악장르 가수가 상을 받은 것은 풀리처상이 1943년 수상 부문을 음악으로 확대한 지 75년 만이다.

MBC, 신동호 전 국장등 정직 6개월

MBC가 '사내 블랙리스트' 작성 당시 지휘라인 인사들을 중징계했다. MBC는 28일 취업규칙 등 위반을 이유로 신동호 전 아나운서국장과 박용찬 전 취재센터장에게 각각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직급 승진 관련 부당노동행위가 드러난 송모 전 경영지원국장에게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MBC는 "이번 징계는 사내 블랙리스트 작성과 직급 승진 부당노동행위 특별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MBC는 앞서 4월 2일 감사 결과, 2014년 안광한 당시 사장이 신 전 국장에게 특정 아나운서들을 거론하며 '이들을 빼면 (대체)인력을 쓸 수 있다'며 업무 배제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널A, 명작 소개 '씨네프리즘' 편성

채널A가 작품성이 뛰어난 국내의 영화를 다양하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채널A는 매주 일요일 자정, 교양프로그램 '씨네프리즘'을 편성하고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 작품성이 뛰어난 작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6월 3일 방송할 첫 작품은 2017년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다시 태어나도 우리'다. 이 영화는 전생을 기억하는 9살 소년 앙투와 그의 유일한 버팀목이 돼주는 스승 우르간의 동행을 담았다. 문창용·전진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2018 들꽃영화상' 다큐멘터리 감독상을 비롯해 제67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제너레이션 대상, 제43회 시애틀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 심사위원 대상 등을 받았다.

모모랜드, 日 후지TV '뮤직페어' 출연

걸그룹 모모랜드가 일본 지상파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했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케이팝 가수들의 일본 방송 출연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신인급 가수인 모모랜드의 지상파 출연은 주목할 만한 일로 평가된다. 29일 소속사 더블킥컴퍼니에 따르면 모모랜드는 28일 오후 후지TV '뮤직페어' 녹화에 출연했다. 모모랜드의 이번 방송 출연은 다음달 13일 일본 데뷔를 앞두고 진행한 프로모션의 일환이다. 모모랜드는 2월과 3월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각각 팬미팅을 열고 2만5000여 팬을 만났다. 1월 '뽀뽀'를 히트시키며 대세로 떠오른 모모랜드는 6월 26일 국내 새 음반을 발표한다.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